

레이노현상의 유병률 이 경 종

레이노 현상이란 추위나 감정의 자극에 의하여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양측성으로 갑자기 허혈이 생기는 현상으로 따뜻하게 해주면 호전된다. 레이노현상은 보통 원인을 알 수 없는 레이노씨병과 다른 질환이나 해부학적 이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차적인 레이노현상으로 구분된다. 이차적인 레이노현상에는 직업과 관련된 진동증후군과 산업중독이 포함된다.

레이노현상은 혈관운동신경의 과잉작용이나 혈관벽의 과민성에 기인된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진동증후군의 경우에 norepinephrine에 대한 동맥혈관벽의 과민성이 이 병의 국소기전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추위나 진동에 전신이 노출되었을 경우 혈장내의 norepinephrine과 oylic nucleotides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자율신경계를 포함한 전신적인 기전이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레이노현상에 대한 유병률을 일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연구한 논문이 1991년도 Journal of Clinical Epidemiology 44권 7호에 게재되었다. 저자들은 Harada N. 등의 공중보건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이다. 일반적으로 일본사람들에서의 레이노현상의 유병률은 서구사람들보다 낮다고 발표되고 있다. 또한 남자들에서의 유병률이 여자에서보다 낮다고 한다. 많은 연구들이 증상설문을 통하여 레이노 현상을 진단하여 유병률을 제시하거나 적은 수의 표본을 사용하여 연구하였는데 이 연구는 남자 1875명과 여자 1998명, 총 3873명을 연구에 포함시켰고 의사를 통하여 이학적 검사를 수행하여 진단하였다. 이 조사는 Ehime시의 주민에 대하여 1988년 3월부터 10월까지 정기적인 건강진단시 수행되었다. 의사가 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1년까지 레이노현상이 있었는지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상을 진단하는 지침서를 토대로 하였고 레이노 현상의 사진을 각 대상자에게 보이면서 면접을 시행하였다. 연령은 20~69세로 나머지 연령층의 대상자는 수가

적어 제외하고 3873명을 연구대상자로 확정하였다. 직업력을 조사하여 육체근로자와 사무직근로자로 구분하였다. 총 3873명의 연구대상자 중 레이노현상이 있었던 사람들은 남자의 경우 61명(3.3%), 여자의 경우 49명(2.5%)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육체근로자와 사무직근로자로 구분하면 남자 육체근로자의 경우 52명(6.2%), 사무직근로자의 경우 9명(0.9%)이었고, 여자 육체근로자의 경우 29명(2.5%),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20명(2.4%)이었다. 원인별 구분하였을 때 남자의 경우 육체근로자들은 진동증후군에 의한 레이노현상이 가장 많아 57.7%를 차지하였고 레이노씨병이 19.2%, 수지 외상이 15.4% 등의 순으로 원인질환이 조사되었다. 남자 사무직 근로자들은 레이노씨병이 77.8%, 수지외상이 11.1%의 순이었다. 전체 남자의 경우 진동증후군이 가장 많아 49.2%, 다음이 레이노씨병 27.9%, 수지외상 14.8%, 교원병 3.3% 순이었다. 여성의 경우는 육체근로자들은 레이노씨병이 75.9%, 수지외상 10.3%, 진동증후군 6.9%, 교원병 3.4% 순이었고, 사무직 근로자들은 레이노씨병 85.0%, 교원병 5.0%, 경부증후군(cervical syndrome) 5.0%, 수지외상과 진동증후군은 없었다. 전체여성의 경우 레이노씨병이 79.6%, 수지외상 6.1%, 교원병과 진동증후군이 각각 4.1% 순이었다. 지난 1년 동안 레이노현상이 발생되었던 횟수를 묻는 질문에 응답한 결과에 의하면 남자의 경우는 레이노씨병에서는 1~5회, 수지외상과 진동증후군에서는 21회 이상이 가장 많았다. 여성의 경우 레이노씨병에서 1~5회가 가장 많아 남자와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 레이노 현상의 유병률을 구분해 보면 남자는 60대가 5.0%, 여자는 20대가 3.8%로서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일반 인구집단에서 발생하는 레이노현상은 진동증후군과 수지외상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질환과 관계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다른 연구들에 의하면 서구인들의 경우 레이노 현상의 유병률이 25~30%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들어 감소 추세를 관찰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데는 두가지 설명이 가능한데, 육체적 조건과 생활환경이 개선되었다는 것과 레이노현상을 진단하는데 방법론과 유병률 측정의 개선이 그것이다. 이 연구는 일반 인구집단에서의 레이노현상의 유병률과 동서양의 유병률의 차이, 그 중 직업과 관련된 유병률 등을 조사한 연구로 규모가 크고 진단의 신뢰성이 비교적 높은 연구로 생각된다.